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부르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끈기 있게, 효과적으로, 사랑으로 실아가십시오.

이 말, 이 사명은 메리 워드가 그녀의 충실한 동료들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약 네 시간 전, 1월 30일 이른 아침에 그녀는 모두를 자기 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앤 터너가 다른 이들, 와인프리드 위그모어와 캐서린 스미스, 메리 포인츠와 프란시스 베딩필드를 데려왔습니다.

와인프리드가 “이제 모두 왔어요”라고 하자, 메리는 “모두가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바바라 바브소프, 엘리자베스 코튼, 엘리자베스 키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다른 이들, 뮌헨에서 학교를 책임진 와인프리드 베딩필드, 고아들을 돌보던 용감한 독일인 안나 레홀린, 프란시스 브룩스비와 뮌헨의 모든 영국과 독일 여성들, 그리고 런던에 있는 한 명과 영국의 다른 곳에 있는 몇 명을 생각했을까도 모릅니다.

메리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동한 채, 그녀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충실할 것, 그 일에 항상, 효과적으로, 사랑으로 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올바른 곳에 두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녀는 각 동료를 큰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메리 포인츠가 바바라 바브소프에게 보낸, 메리 워드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어떤 외적인 구조에 의해, 규칙에 의해, 서약의 상호 확신에 의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유일한 끈은 각 여성이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두신 소명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권위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그 소명을, 평생 동안 인내하며,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후, 메리 워드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해내십시오.”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부르심을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어야 하며, 일을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해 선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메리가 30년 전 리 신부에게 쓴 편지처럼 말입니다.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항상 사랑이 넘치는 여성으로 남아,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성, 생각,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소명이 끊임없고, 효과적이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것은 곱씹어볼 만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내는 어떠한가요?

내 수고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 사랑과 헌신은 어떠한가요?